***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(3)   
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림***

**5/2 월**

**마 28:19**

**19** 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,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,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,

**롬 6:3**

**3** 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?

**고전 12:13**

**13** 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,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.

**롬 6:4-5**

**4** 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,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*5** 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,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.

**갈 3:26-29**

**26** 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

**27** 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.

**28** 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,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,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

**29** 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,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.

**5/3 화**

**마 28:19**

**19** 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,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,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,

**엡 1:13**

**13** 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,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.

**엡 3:8, 10**

**8** 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,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

**10** 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

**엡 4:15-16**

**15** 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,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.

**16** 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,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.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.

**고전 15:45b**

**45b** 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.

**고후 3:17**

**17** 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.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.

**요 15:4-5, 7**

**4** 내 안에 거하십시오.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,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.

**5** 나는 포도나무요,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,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.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**7** 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,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.

**5/4 수**

**고후 13:14**

**14**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
**고전 15:10**

**10** 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,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.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,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.

**요일 4:8-11**

**8** 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.

**9** 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,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.

**10** 사랑은 이렇습니다.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.

**11** 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,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.

**고전 1:9**

**9** 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.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.

**행 2:42**

**42** 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,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.

**고후 1:12**

**12** 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. 곧,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,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.

**고후 4:15**

**15** 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.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풍성해진 은혜로 감사가 넘쳐 나서,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.

**고후 8:9**

**9** 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.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, 이것은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
**5/5 목**

**요 3:16**

**16** 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.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**요 1:17, 14, 16**

**17** 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,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.

**14** 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,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.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,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.

**16** 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, 은혜 위에 은혜였다.

**요 4:14**

**14** 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.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.”

**요 7:38-39**

**38** 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.”

**39** 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.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,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.

**고전 16:23-24**

**23** 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
**24** 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
**요일 4:9-10**

**9** 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,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.

**10** 사랑은 이렇습니다.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.

**5/6 금**

**계 1:4-5**

**4** 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.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,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,

**5** 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,

**계 3:1**

**1** 사데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. ‘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. 내가 너의 일을 안다.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, 사실 죽어 있다.

**계 4:5, 10**

**5** 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,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.

**10** 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히 살아 계신 분께 경배하고, 자기들의 금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.

**출 25:37**

**37** 그리고 등잔 일곱 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아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해야 한다.

**민 8:2**

**2** “너는 아론에게 전하여라.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. ‘네가 등잔들을 올려놓을 때, 등잔 일곱 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.’ ”

**슥 3:9**

**9** 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.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.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겠다.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.

**슥 4:2, 7**

**2** 그가 내게 말하였다. “무엇이 보입니까?” 내가 대답하였다. “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. 그 꼭대기에는 대접이 있고 등잔대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, 그 꼭대기에 각 등잔들을 위한 일곱 관이 있습니다.

**7** 큰 산아, 네가 무엇이냐?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. 그가 꼭대기 돌을 내어놓을 때에, 사람들은 ‘은혜, 은혜가 그 돌에 있다!’라고 외칠 것이다.’ ”

**5/7 토**

**계 5:6**

**6** 또 내가 보니,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,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.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,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.

**골 1:18**

**18** 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. 그분은 시작이시며,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.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
**계 5:5, 12-13**

**5** 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. “울지 마십시오. 보십시오, 유다 지파의 사자,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,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.”

**12** 그들은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. “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풍성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.”

**13** 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“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”

**골 1:15-17, 19-20**

**15** 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,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.

**16** 왜냐하면 만물,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,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,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,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,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.

**17** 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,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.

**19** 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,

**20** 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,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.

**5/8 주일**

**요 1:18**

**18** 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,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.

**요 11:43-44**

**43** 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. “나사로, 나오시오!”

**44** 죽었던 그가 나왔는데, 손과 발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여 있었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십시오.”

**골 1:9-11**

**9** 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,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,

**10** 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,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,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.

**11** 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의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,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바라며,

**골 2:2, 10**

**2** 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,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.

**10** 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.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.

**골 3:10**

**10** 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.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.

**골 4:12**

**12** 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. 그는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,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,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.

***The Church in New York City***

www.churchinnyc.org